

정은경 장관, 환자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

- 지역환자안전센터 현장방문 및 환자·소비자 단체 간담회 -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7일(목)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지역 환자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환자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환자·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환자안전센터*의 활동 현황 등 환자안전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, 환자·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안전 및 권리 강화에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환자안전법(제8조의3)에 따라 환자 안전 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소 보건의료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를 지정하는 제도('25년 기준 10개소 운영 중)

환자·소비자단체는 “환자를 중심에 둔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” 라고 당부하며 “의료공백에 따른 피해조사와 지원,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” 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.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” 라며, “국민,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” 을 바탕으로 “지역·필수·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겠다” 라는 의지를 밝혔다.

이어서 “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,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환자의 알 권리,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 라며, “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,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,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지역환자안전센터 방문 및 환자·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요

담당 부서	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성창현 (044-202-24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우 (044-202-2472)



□ 일시 및 장소

- (일 시) '25. 8. 7.(목) 14:00 ~ 15:30
- (장 소)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(삼성생명 일원역 빌딩)

□ 참석자

- (보건복지부) 장관, 보건의료정책관, 질병정책과장, 보험급여과장, 의료기관정책과장 등
- (환자계) 소비자시민모임(윤명 사무총장), 중증질환연합회(김성주 대표), 환자단체연합회(이은영 이사), 한국소비자연맹(정지연 사무총장), 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(정진향 사무총장) 등
- (삼성서울병원) 지역환자안전센터장(발표, 이준행 교수), QI실 부팀장 등

□ 세부 계획^[안]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 ~ 14:30	▶ 지역환자안전센터 방문	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
14:30 ~ 15:30	▶ 환자·소비자 단체 간담회	삼성생명 일원역 빌딩 B동 9층 강의장 3층